

사무엘하 9.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킨 ‘다윗’ (삼하 9 장 1-13 절)

들어가기

‘다윗’은 그의 왕정 초창기를 거의 대부분 고달픈 전쟁을 치르면서 보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을 주변국 중에서 가장 부강하고 평안한 나라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함을 얻게 된 ‘다윗’은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먼저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는 생각이었고, 그 다음은 지난 날 자신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해 준 친구 ‘요나단’을 떠올리며, 그와 했던 약속을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친히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찾았고, 그를 자신의 왕궁으로 불러 함께 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지난 날 ‘사울’ 집안의 모든 재산을 다 회복하여 ‘사울’의 종 ‘시바’에게 관리하도록 하면서, ‘므비보셋’의 가족들을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1. ‘다윗’이 ‘사울’의 유족을 찾으려 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나요? (1 절)

1) 오래 전 자신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 참고: 사무엘상 20 상 42 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 요나단? -> ‘사울’ 왕의 큰 아들, 곧 왕위 계승자!

-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일하심을 알고, 처음부터 ‘다윗’을 소중하게 받아준 사람.
- 이후 자신의 왕위나 아버지와의 원수관계를 상관치 않고,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며,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

✧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갚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우리도 주님을 닮은 사랑과 긍휼을 베풀고 나누는 성도들이 됩시다. 또한 약속한 것이 있다면,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그 약속을 지키려는 성도들이 됩시다.
- 시 15:4,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 또한 참된 선은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서 도와주는 것임을 기억합시다!

- 선행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지 말자!

2) 특별히 이때 3 절의 ‘다윗’의 결심을 주목해 보자.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_____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 ✧ 다윗은 단순히 세상을 떠난 친구의 아들을 불쌍하게 생각해서 동정심을 표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은총을 생각하면서 그와 같은 은총을 베풀겠다고 결심했다는 것!
- ✧ 성도가 베푸는 선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닮은 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은총은 어떤 은총인가?
-> 그것은 한마디로 **희생을 동반한 사랑**이다!

✧ 참고: 요한 1서 4장 7-11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 ✧ 하나님의 은총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사랑임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자!

- ✧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자. (누가복음 6장 27절, 마가복음 5장 44절)
 - ‘원수를 사랑하고, 미운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 사람의 기분을 맞추려고 사람의 꾀로 베푸는 은혜는 결코 오래가지 못함을 기억하자.
 -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은 사람답게 하나님을 닮은 사랑과 긍휼을 서로 베풀고 나누는 성도들이 되어 봅시다!

2. ‘사울’의 종 ‘시바’는 ‘다윗’에게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마길’의 집에 있음을 알렸습니다.

1) ‘시바’란 이름의 뜻은 ‘힘’이라는 뜻입니다.

✧ 그는 원래 ‘사울’ 집안의 종들 중 하나였으나, 지금은 주인 같은 종으로 살고 있었음.

✧ 성경 학자들의 견해

- 그는 ‘사울’ 왕가가 몰락한 후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 살면서 ‘사울’의 재산을 맡아 자기 것인 양 관리하며 살았던 것으로 추측. (15명의 아들과 20명의 종을 거느림)
- 어떤 학자는 그가 ‘사울’과 함께 잃어버린 암 나귀를 찾아 다녔던 종이 아닐까? 추측.
- 매우 기회주의적이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던 악한 사람!
 - 이후 그는 ‘다윗’의 명을 어기고 ‘므비보셋’을 모략하여 재산을 갈취함 (삼하 19장)

2)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

✧ ‘사울’ 왕가의 몰락과 함께 이때까지 잊혀진 존재로 살았던 ‘요나단’의 아들.

✧ 더군다나 그는 육신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었음.

✧ 곧 ‘다윗’은 당시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소외된 삶을 살던 ‘므비보셋’을 친히 찾아서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며 하나님을 닮은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

3) 이때 특별히 ‘므비보셋’을 보살펴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 ‘**마길**’이었습니다. (4절)

✧ 여기서 주목할 것 -> 당시 ‘므비보셋’은 이스라엘의 **초대왕권의 유일한 후계자!!!**

- 곧 ‘마길’이 ‘므비보셋’을 보호해 준 일은 잘못하면 ‘다윗’ 정부로부터 오해와 반감을 사서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던 일이었다는 것!

- ✧ 그런데 ‘마길’은 이후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 ‘마하나임’으로 도망치며 곤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도 ‘다윗’에게 음식을 제공하며 도움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삼하 17:27 절)
- ✧ 곧 ‘마길’은 자신이 당할 불이익이나 생명의 위협에 신경 쓰지 않고 언제나 곤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었던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 이런 ‘마길’의 삶은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은총을 직접 실천하는 예가 아닐까?

3. ‘다윗’을 만난 ‘므비보셋’은 ‘다윗’을 두려워하였습니다. (6-7 절)

- 1) ‘므비보셋’은 다윗을 보자 앞으로 나와 절하며 자신을 ‘다윗’의 ‘종’이라 칭하였습니다.
 - ✧ 이는 그가 단순히 자신을 낮추고 ‘다윗’을 높였다고 보다는 당시 주변국에서 폐위된 왕의 유족들이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지 잘 알았기에 큰 두려움에서 나온 행동!
- 2) 그래서 ‘다윗’은 그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안심시키며, 자신이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그에게 은총을 베풀려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 주는 성도들이 됩시다.

4. 그럼 ‘다윗’이 ‘므비보셋’에게 베푼 은총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나요?

- 1) 잃어버린 ‘사울’ 집안의 모든 재산을 다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 ✧ 참된 사랑은 말뿐인 사랑이 아닌 구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되어야 함. (약 2:16)
- 2) ‘므비보셋’을 왕궁에 머물게 하고, 자신과 한 식탁에서 먹으며, 아들 중 하나처럼 대함!
 - ✧ 어떤 신학자 - 이는 ‘다윗’의 계산된 정치적인 전략이라고 주장하기도 함
 - ✧ 그러나 복음주의 학자들
 - 이는 장차 성도가 하늘 나라에서 받게 될 축복을 예표하는 것.
 - 곧 성령에 의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양아들 되어) 함께 교제하게 될 것.
 - 계 3:20,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 3) ‘사울’의 종 ‘시바’에게 모든 재산을 관리하며 이전처럼 ‘므비보셋’의 가족을 온전히 섬기며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 ✧ 이에 ‘시바’는 ‘다윗’의 명대로 순종할 것을 약속!
 - ✧ 참고: ‘므비보셋’의 아들 ‘미가’
 - ‘다윗’의 보호아래 ‘사울’ 집안의 대표자가 되어 수많은 후손들을 가지게 됨 (대상 8 장)
 -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요나단’이 맺었던 언약을 성취시켜 주신 증거가 됨.
 - 또한 ‘요나단’의 의로운 신앙을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인정해 주신 것!

 오늘 내용을 통해 새로 묵상했거나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중보기도 나눔.